

지방자치·종합

'U대회 남북단일팀' 추진 월프리드 렘케 UN사무총장 스포츠보좌관

"런던 올림픽서 北 만나 공감대 이끌어 낼 것"

특별인터뷰=박진현 선임기자

지난해 11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친선탁구 대회 '피스 앤 스포츠컵'(Peace & Sports Cup) 공식만찬장 월프리드 렘케(Wilfried Lemke·70) UN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스포츠 보좌관)은 공식만찬 연설을 마친 후 기념촬영 위해 남북한 단일 탁구팀 선수로 참가했던 유승민과 김현봉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분단된 남북한의 선수들과 나란히 사진을 찍으면서 '탁구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회의 취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렘케 보좌관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피스 앤 스포츠컵'의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월프리드 렘케 특별보좌관이 또 한번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란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9일 광주에 왔다. 10일 오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와 UN의 공동프로젝트 협약식에 앞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렘케 특별보좌관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의식한 듯)남북단일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UN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N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 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스포츠 보좌관은 UN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제스포츠 대회 기간 동안) 각국 정부와 그룹, 언론의 중재자(facilitator) 역할을 한다. 스포츠는 세계평화는 물론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아프리카는 지난 등으로부터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아프리카 난민캠프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밟은 미래를 접할 기회도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분쟁지역의 여성들 역시 '스포츠의 힘'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스포츠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들 민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했다고 들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아쉽게도 특별한 인연은 없다. 지난 2008년 4월 반기문 사무총장이 화상전화를 통해 스포츠 특별 보좌관으로 함께 일하지 않겠나는 제의를 해왔다. 화상전화 때문에 긴 통화를 하기 어려웠지만 뉴욕으로 와 달라고 했을 때 긴장되면서도 설렜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독일 브레멘 주의 스포츠 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2의 삶으로 UN이 추구하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반 총장의 제의를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올해로 약 4년간 반 사무총장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훌륭한 리더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일하시는



지난해 피스 앤 스포츠 컵 대회

남북 단일 탁구팀 구성 중추역

서로 눈높이 맞는 대화·존중

광주U대회 미션 성사에 최선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업무를 다할 수 있는지 물은 한다. 이번 U대회 조직위와의 공동프로젝트 협약 등 광주에서의 모든 업무는 2주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반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할 게 많아 기쁘다.(웃음)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UN은 오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다. 독일 통일이전

함부르크 대학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스포츠가 동독과 서독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오랜 세월 독일 사회의 주요 이슈였다. 지난해 카타르 '피스 앤 스포츠 컵 대회'의 남북 단일 탁구팀 구성에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은 동등한 위치(eye level)에서의 남북 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로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상호 존중은 남북간의 장벽은 물론 나아가 가까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 공동프로젝트 협약 체결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 전 세계 어느 도시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아마도 오는 7월28일 개막하는 런던 올림픽이 그 첫번째 단계가 될 것 같다. 중재자로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100% 확신 할 수 없지만 런던 올림픽은 북한 스포츠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함께 북한 스포츠 관계자들과 접촉해 남북 단일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북한이 UN의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웃음). UN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UN이 광주U대회의 미션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U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면.

▲UN과 인연을 맺기 이전 독일 브레멘 주 스포츠 상원 의원과 유명 축구를 끊임없이 웨더 브레멘(Werder Bremen) 단장으로 일하면서 스포츠가 자라는 세대들에게 (성취감 등)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회 개막까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환경과 평화, IT, 문화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 U대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UN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월프리드 렘케는

1942년 독일 출생으로 함부르크 대학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 세계도시연합 부회장, 사우스 아프리카 웨스턴 케이프대학 명예교수를 거쳐 지난 2008년부터 UN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소녀시대 12일, 원더걸스 15일 공연

여수박람회 팝 페스티벌

국내 가요계 대표 걸그룹인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국내 정상급 가수 70여 개팀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 전 세계 어느 도시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아마도 오는 7월28일 개막하는 런던 올림픽이 그 첫번째 단계가 될 것 같다. 중재자로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100% 확신 할 수 없지만 런던 올림픽은 북한 스포츠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함께 북한 스포츠 관계자들과 접촉해 남북 단일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북한이 UN의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가?

▲ 솔직히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웃음). UN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UN이 광주U대회의 미션에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U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면.

▲UN과 인연을 맺기 이전 독일 브레멘 주 스포츠 상원 의원과 유명 축구를 끊임없이 웨더 브레멘(Werder Bremen) 단장으로 일하면서 스포츠가 자라는 세대들에게 (성취감 등) 교육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회 개막까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환경과 평화, IT, 문화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 U대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UN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 원더걸스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최근 발표한 '라이크 디스'로 빌보드 K-POP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가요계의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축제인 엑스포 팝 페스티벌 장식하게 됐다.

한편 엑스포 팝 페스티벌은 엑스포 입장권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폐막 때까지 총 50여회의 공연이 계속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광주·전남 5개 상의 박람회 입장권 1억 구매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 상의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 입장권을 대량 구매했다.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 상의 등 광주·전남지역 5개 상공회의소는 10일 여수세계박람회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구매 체결식을 열고 총 1억원 어치의 입장권을 구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호남 목포상의, 송영수 순천상의, 심장섭 여수상의, 김효수 광양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구매한 입장권은 각 상의별 회원사에 분배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스리브' 음악경연대회 본선 진출팀'이 박람회장에서 신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오늘은 삶의 이辱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는 거리의 악사 '경규'가 초대됐다.

△유스밴드-경규(오후 2시30분)

△국가의날-솔로몬군도(엑스포홀·오전 10시)

△바다새파리 공방

(어린이극장·오후 3시30분)

△강원문화의날-전통마당·오후 4시)

△연희단팔산대(전통마당·오후 7시)

△비단의 소녀(해상무대·오후 6시30분)

△팝페스티벌-인순이(오후 8시)

△어제의 관람객 수=6만7686명(이하 10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327만8596명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림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지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7천 원 매도가 8억5천 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로.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유흥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co.kr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빼고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부산·제주·부동산으로 시외순회 및 시외순회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